

광주천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광주 지역 하천지킴이 단체들이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광주·전남녹색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천지킴이 5개 단체는 지난 9일 광주전남·녹색연합 교육실에서 '풀뿌리 하천지킴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킴이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천·영산강살리기 실천사업의 하나로 '마을도랑부터 영산강까지 푸른 물길'이 남~실'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광주천, 풍영정, 황룡강 등 광주 인근의 하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황룡강환경생태문화지킴이 ▲풍영정전 사람모임 ▲수곡천 생태복원을 위한 엄마들의 모임 ▲소태천과 친구하기 등이 참석했다.

하천지킴이 단체들은 그동안의 활동 사항들을 소개하고 '생태하천으로 살리기 위한 광주천 만들기'를 의제로 광주천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이들 단체들은 광주천이 살아야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이 되살아난다는 큰 목표를 바탕으로 광주천을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만들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사고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식개혁 운동에 힘써야 하고, 미래의 하천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특히 ▲광주천 분류 및 지류 하천 모니터링 지속 추진 ▲광주천 분류 및 지류 하천 구역 지정 및 관리 ▲광주천 분류 및 지류 하천 교육 및 홍보 강화 ▲지류 하천 살리기 네트워크 형성 ▲광주천 지류 하천 정책 개선 및 수립 ▲광주천 영산강 친환경 시스템 구축 등

자연·사람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탈바꿈

광주 하천지킴이 '풀뿌리 네트워크' 내년 본격 활동

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이뤄가기로 했다.

광주 풀뿌리 하천지킴이 네트워크는 교육 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제, 정책수립과 제안, 홍보활동 등을 중심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

해 정기적으로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하천지킴이 활동은 일부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활동하는 회원들이 부족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네트워크 구성으로 서로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실천 목표를 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광주 지역 하천은 물론 영산강의 수질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희 간사는 "그동안에는 지킴이 단체들이 본인들의 마을에 있는 하천에만 관심을 갖고 활동하면서 활동영역이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며 "광주 지역 하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인지사 kki@kwangju.co.kr



광주지역 하천의 수생태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5개의 환경지킴이 단체가 지난 9일 '풀뿌리 하천지킴이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광주·전남 녹색운동연합 제공>

서울동물원이 뽑은 올해 10대 뉴스

1위 '구제역과의 전쟁'

올 한해 서울동물원 동물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서울동물원은 올 한해 매스컴과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추려 13일 소개했다.

1위는 서울동물원 가족들이 개월 이래 처음으로 폐장까지 하며 사투를 벌였던 '구제역과의 전쟁'이 켈렸다.

탈출 9일 만에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서울동물원으로 돌아온 말레이곰 '꼬마의 스타 등극'과 세계적 희귀종이자 서울동물원의 간판스타인 로랜드 고릴라 '고릴라 사랑'에 대한 애도 물결과 박제 논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생전에 신랑 수컷 셋을 죽인 지명적 요부로 '팜파파'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내 유일 그레비 얼룩말 '펠라'의 사망은 4위에 올랐다.

다람쥐원숭이, 흰손기반 등 멸종위기종 61마리를 포함, 222마리가 출산해 잔치분위기에 휩싸인 '희귀동물 출산 러시 경사'가 5위로 선정됐다.

높이가 24m에 달하는 세계 최고 '침팬지 정글타워 조성'은 6위, 잠복 고환 때문에 세계 첫 고환 보정수술을 받은 '오랑우탄 백석'이 7위에 올랐다.

한려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푸틴 총리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원 적을 마친 '러시아산 백두산 호랑이 도입'이 8위, 대가 끊길 위기에 놓인 흰코뿔소를 싱가포르에서 들여와 건강관 2세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컷 흰코뿔소 반입'이 9위를 차지했다.

국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서울동물원 멸종위기종 불법 포획 횡단한 돌고래쇼' 사건도 10위에 올랐다.

이밖에 서울동물원 새로운 100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사이언스 동물원'의 대변신' 선포를 비롯해 '동물 존중시대'·'재미있는 동물작품의 세계', '동물원 올챙이 3만마리 여름나기', '서울동물원 나무늘보 2세 탄생' 등도 올 한해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연합뉴스

더워진 적도대 바닷물이 남극 빙하 빠르게 녹인다

최근 남극반도 서부 아문젠해로 유입되는 두 빙하의 해빙 속도가 빨라진 현상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데 부분적으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 연구진은 남극 대륙의 5대 빙하에 속하는 파인선 빙하와 트웨이츠 빙하가 밑에서부터 녹고 있어 녹는 속도가 더 빠르며 빙상 녹은 물이 빠른 속도로 아문젠해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미국 지구물리학회영 연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들은 이런 현상이 아문젠해 이북의 해수면 기압이 정상수준보다 높아 서풍을 일으켜 빙하를 덮은 표층수를 밀어내고 빙하 가장자리에 더운 심층수가 솟구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으면 지구 해수면은 장기간에 걸쳐 1.8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남극대륙에서도 이 지역은

지구 다른 지역, 특히 열대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미항공우주국(NASA) 과학자들은 최근 뉴욕시 전역의 파인선 빙하 일부가 부서져 거대한 빙산이 되고 있는 현상을 관찰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은 정상적인 것으로 남극 빙상이 얇아지고 있는 것과는 분명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지역에 부는 이례적인 바람은 먼 적도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바람은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서 남극대륙 해안선 부근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순환에 변화를 가져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진은 열대 태평양 지역의 이례적인 기상 상태가 인간 활동과 관련이 있는만큼 남극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현상 역시 같은 원인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다이옥신→다이옥신, 글리세린→글리세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시험·검사 용어집' 발간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 "환경과 관련된 시험이나 검사·정확도 관리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쓰이는 용어를 표준화한 '환경 시험·검사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이 책에서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를 설명하고 분석기기와 장비·화학물질 등의 '표준용어'를 정해 추천했다. 예를 들면 '다이옥신'이라고 쓰던 것은

'다이옥신'(Dioxin)으로, '크실렌'은 '자일렌'(Xylene)으로, '글리세린'은 '글리세롤'(Glycerol)로 표기하는 게 좋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령이나 자료마다 사용되는 용어가 달라 시험·검사와 정확도 관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며 "표준화를 통해 시험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공서·기업 자원절약·환경보전실태 공개

환경부, 내년 9월 시행 '환경정보공개제도' 본격 준비

환경부는 13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자원·에너지 절약 상황,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등을 공개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내년 9월 시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고시해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과 녹색기

업,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 등 1100여 곳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저감 투자 현황, 환경법규 위반현황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011년 환경정보는 내년 9월말까지 등록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로 사회 전반에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과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도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업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60%)	용적율	478.73%(법정: 480%)
규모	지하0층 지상9층		
건축면적	1,435.47㎡(434.23평)	최고높이	55.50m
건축연면적	11,543.18㎡(3,491.81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1층~7층까지 설치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개요

층별	면적	평	층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워터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층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사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일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 준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대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